# MBK 김병주의 사재 출연

이 정 희의 西村브리핑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재 출연을 약속했다. 사재 출연이란 기업의 오너나 대주주가 자신의 사유 재산을 공익적인 목적이나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내놓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후 MBK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망가뜨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여기에 아무런 자구책 없이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여론을 진화하고자 어쩔 수 없이 사재 출연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출연 금액이다. 시장에서는 1조원대 사재 출연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턱없이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우세하다. 금액이 적을 것으로 보는 쪽은 사모펀드가 복수의 기관투자자(LP)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을 사들여 경영하는 위탁운용사(GP)라는 점을 들고 있다. 위탁운용사는 재벌 그룹 회장 처럼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출연 금액이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사재 출연 기준을 소상공인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제한하면서 현실적으로는 3000억원도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반면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운영을 위해선 매달 3000억원대 매입 대금과 임대료, 인건비, 기타 비용 등 총 4000억~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기업회생 신청 후 협력사들이 현금 정산 전환과 선납 등을 요구하고 있어 1조원 대 사재 출연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사재 출연 역사는 뿌리가 깊다. 군사 독재 시절엔 그냥 "투자가 필요해"로 족했다. 그러면 회장들이 알아서 계획도 세우고 돈도 조달했다. 가끔 반항하는 기업은 '즉결 처분'하면 그만이었다. 어르기보단 뺨 치기가 주였다.

사재 출연이 두드러졌던 시기는 외환위기가 터진 김대중(DJ) 정권 때다. DJ의 '고통 분담' 이 한마디에 재벌들은 줄줄이 사재를 털어야 했다. 은행 빚을 많이 쓰고 있는 데다 경영 잘못한 죄, 회사 돈 빼먹은 죄까지 얹어지는 통에 당시 재벌들은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그후 사재출연은 재벌 계열사의 구조조정이나 부실처리 문제가 닥쳐 일이 꼬일 때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했다.

사재 출연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삼성자동차 빚 처리를 위해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2조8000억원어치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대표적인 예다.

대우그룹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김우중 회장은 '기업주의 무한책임임'을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1조3000억원의 사재를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담보가 아닌 사재 출연'이라며 채권단이 알아서 처분하도록 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1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태영그룹 대주주 일가가 484억원의 사재를 내놓은 것을 들수 있다.

사재 출연은 '지분만큼 책임진다'는 자본주의 원칙을 정면에서 거스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국민적 저항은 없었다. 경제 살리고, 국민 세금 아끼고, 악덕 기업주 혼내 준다며 오히려 박수를 받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의 부실 원인 대부분이 MBK의 경영 잘못이거나 유용 등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김 회장이 사재를 털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ljnh@metroseoul.co.kr

# 사모펀드에 개미까지 사냥 당한다

기자 수첩 신 하 은 〈자본시장부〉

사모펀드(PEF)는 흔히 '기업사냥꾼'으로 불린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 내 개인 투자자들의 존재감이 높아지면서 개미(개인 투자자)들까지 사냥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들 수 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지난 4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다. 이후 신평사들은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인 'D'로 다시 강등하면서 기업가치가 폭락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회생 절차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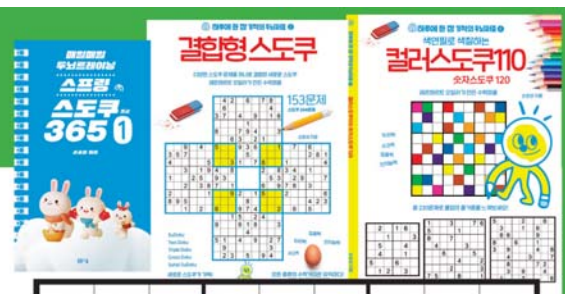
이제 사건의 쟁점은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으로 집중되면서 과거 2011년 LIG 사태, 2013년 동양 사태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LIG와 동양그룹 모두 차입금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다만 동양·LIG 사태는 기업의 자체적인 문제였고,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을 실패한 사례라고 평가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이른바 '먹튀'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활동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려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증권사들은 지난달 말까지 투자자들에게 '홈플러스 채권'을 판매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린 홈플러스 채권 규모는 2000억원,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에 들어간 채권은 3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 피해자 대부분이 개미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재무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업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을 낸 후에는 발을 빼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사모펀드의 기업사냥 희생양으로 개미들이 함께 묶이는 것이다.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모펀드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투자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godhe@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할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 4 | 6 | 8 | | | 5 | | | |
| | | | 1 | | | 8 | 2 | |
| | | | | | | | | 4 |
| | 4 | | 7 | 8 | | 1 | | |
| 3 | | | | | | | | 7 |
| | | 7 | | 1 | 4 | | 6 | |
| 9 | | | | | | | | |
| | 1 | 5 | | | 2 | | | |
| | | | 6 | | | 3 | 8 | 5 |

| | | | | | | | | |
|---|---|---|---|---|---|---|---|---|
| 4 | 5 | | 7 | | | 8 | | 6 |
| | | | | | | 1 | | |
| | 6 | | | | 3 | | | |
| | | 6 | 3 | 9 | | | 2 | |
| 3 | | | | | | | | 5 |
| | 1 | | | 2 | 7 | 3 | | |
| | | | 8 | | | | 7 | |
| | | 4 | | | | | | |
| 5 | | 3 | | | 4 | | 1 | 8 |


## 오늘의 운세

3월 21일 (음 2월 2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신만 너무 사랑하지 마라. **48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먼저 해야 하나 고민. **60년생** 마치 용이 승천하는 기분으로 지내라. **72년생** 연인에게 너무 간섭하면 거리감만 생긴다. **84년생** 상처는 나아도 흉터가 거슬린다.

**37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때 좋은 재운이 들어온다. **49년생**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61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열심히. **73년생** 끝까지 참는 것이 내일의 행운을 가지게 된다. **85년생**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이니.

**38년생**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 **50년생**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62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고 한숨이 난다. **74년생** 약한 것이 중간에 끼면 피해를 보게 된다. **86년생** 옳은 일을 해도 시비 거는 사람이 많다.

**39년생**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51년생** 분수를 알고 처신해야 탈이 없다. **63년생** 매일 뜨는 태양이 오늘은 더 새롭다. **75년생**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 **87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니 마음이 불편.

**40년생** 아직 잘나간다고 좋아하지 마라. **52년생** 아까워도 주변에 나누어라. **64년생** 지치고 힘들어도 가족을 생각하며 참아라. **76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제시하는 날. **88년생**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지만,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데.

**41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53년생**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참는 것이. **65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77년생** 길 가다가 금덩이를 주울 운이니 횡재. **89년생** 파란 하늘이 그립고 비빌 언덕이 필요.

**42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54년생** 아니라고 생각 들 때 물러나라. **66년생** 자녀들의 위로가 필요한 날. **78년생** 주변 사람을 탓하지 말고 서류를 살펴보면 길이 보인다. **90년생** 좋은 꿀을 얻고 싶다면 벌통을 준비를.

**43년생**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아프니 좀 쉬어가라. **55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서면 발걸음이 가볍다. **67년생**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휴식. **79년생** 보험을 들고 저금계획을 살펴보도록. **91년생**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도 인생은 누구나 고독.

**44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노를 힘껏 저어라. **56년생** 뚝심으로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68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긴다. **80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쓰자. **92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다.

**45년생** 다소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는다. **57년생**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69년생** 기관지 질환이 의심된다. **81년생** 복권에 당첨되려면 먼저 복권을 사야 하지 않겠는가. **93년생** 동업자의 협조를 얻어 일을 풀어나가자.

**46년생** 책을 보니 설득력이 생긴다. **58년생** 욕심내지 말고 능력에 맞게 행동. **70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82년생** 현실에 실망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도 자신의 실력을 갖춰야 긴 안목이 생긴다. **94년생** 태평한 하루.

**47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 **59년생** 상대에게 불만이 있어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71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계획적으로 처리. **83년생** 보라색이 행운을 준다. **95년생** 평소부터 능력을 키워놔야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다.

## 김상회의 四季

### 때를 맞춰서 걷기

양손에 떡을 쥔 고객분이 있었다. 사위는 고시에 합격한 공무원이었고 아들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 차장이었다. 여자분은 꼭 원하는 게 있다고 했다 공무원인 사위와 대기업 간부인 아들이 모두 승진할 수 있도록 운세를 이끌어달라는 것이다. 사위와 아들의 사주를 살폈다. 고시 출신 사위는 관성이 빛을 잃고 그 운세가 쇠락하는 중이었다. 관성은 올해가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시나브로 시들고 있었다. 관성이 흔들려 관운이 불안하니 올해 승진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반면에 대기업 차장인 아들은 올해 길운이 들어오는 해이다. 길운이 힘을 펼치니 능력을 인정받고 넉넉히 승진할 것이다. 아들은 힘든 시기인데 운 좋게도 대운을 타고 관운이 들어오니 귀인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위와 아들은 성격도 크게 달랐다. 사위는 욱하는 일이 잦고 아들은 차분하고 꼼꼼하다. 욱하는 성격은 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직장 선후배와 부딪힐 일이 많다. 견제하고 질시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아들은 주변 사람들과 척지지 않는 성격이다. 맡은 일을 똑 부러지게 해내고 책임감도 강하다. 이러니 신망이 두터워 도와주는 사람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사위와 아들의 사주와 성격을 이야기해주니 여자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승진하면 좋겠지만 무리를 두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을 건넸다. 이미 두 손에 떡을 쥐고 있는데 지나치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렇다고 사위가 마냥 승진을 못 하는 운세도 아니다. 올해는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명리는 때와 운세를 알려주는 학문이다. 운이 좋은 시기에는 성큼성큼 걸으면 되고 운이 그림자진 시기에는 조심조심 걸으면 된다. 때를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팔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 행·편 집 인 | 이 장 규 | 편집국장 | 윤 휘 종 |
| 인 쇄 인 | 중앙일보(주) |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35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39호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